



美 FOMC 결과 및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 美 정책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점검
- 금융권 대상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 점검
- 주식 결제주기 T+1 전환 로드맵(초안, 다음주부터 의견수렴(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10. 29.(목)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덕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참석자들은 11월초 예정된 美 중간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즉각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금리상승이 금융권 취약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였다. 한편, 주식 결제주기 T+1 전환 로드맵(초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음주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총괄>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창기 (044-215-2750)
	자금시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je9350@korea.kr)
금융위원회	국고실	책임자	과 장 박민주 (044-215-5130)
	국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익 (ksi1206@korea.kr)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0bb@korea.kr)
	금융시장국	책임자	팀 장 윤대혁 (02-759-4777)
	시장총괄팀	담당자	과 장 장동산 (dongsan@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3145-8180)
	금융시장총괄팀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im-tj@fss.or.kr)

지금부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美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3.75~4.0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미국 등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투자 전망과 국제유가 흐름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美 대외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리전망의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AI 투자의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GDP가 전기대비 1.0% 성장하고

금년 3% 중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채 시장은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美 중간선거, 佛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11월 발행물량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금융권 취약차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 발표한 지원대책¹⁾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1) 8.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제주기 단축은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 및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T+1 전환 로드맵 초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및 국내외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시장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을 함께 살피고
정책 대응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긴밀히 공유하여
시장의 안정과 신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